“난 여성 아닌 우주인…대한민국 꿈 이루겠습니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씨 기자회견…‘성공적 비행’ 자신감 피력

광주 출신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29·한국항공우주연구원)씨가 우주비행 하루를 앞두고 성공적인 우주 비행을 자신했다.

7일 SBS에 따르면 이소연 씨는 이날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러시아 우주인 선장 세르게이 볼코프(34), 우주비행 엔지니어 올레그 코노넨코(43)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나는 우주에서 여성이 아닌 전문 우주인”이라며 여성으로서 불편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일축하고 우주비행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씨는 “성공적인 발사를 기대하며 우주비행을 다녀온 뒤에도 한국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또 유리 가가린이 1961년 세계 최초로 우주비행을 한 기념일인 12일 ‘우주의 날’에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물고 있는 미국, 러시아 우주인들과 한국 우주음식으로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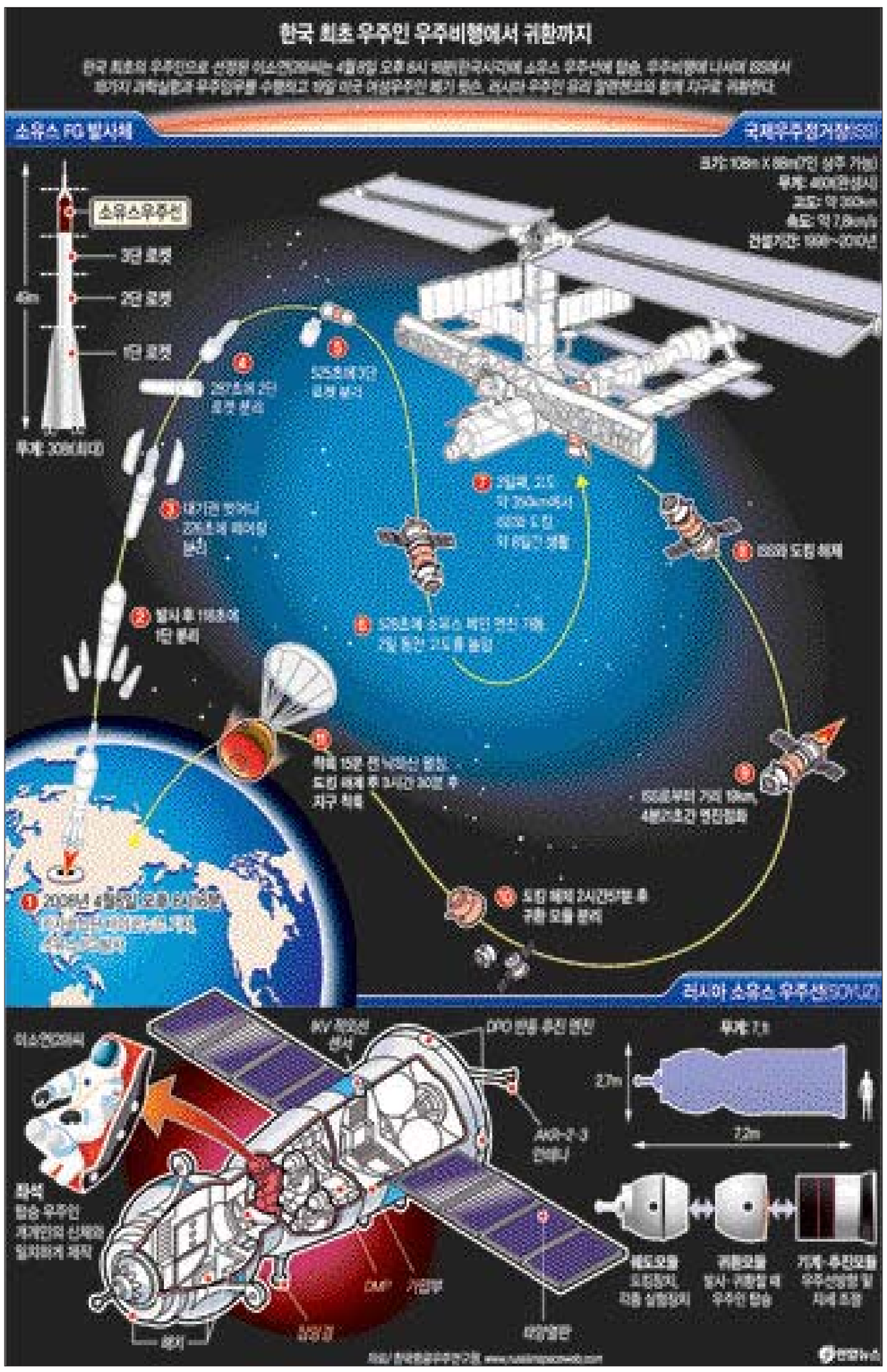
남북관계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는 “남북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면서 “북한 어린이들도 이번 우주 비행을 보며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또 “ISS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와우’라고 소리칠 것 같다”며 “우주에 가족, 친구들 사진은 물론 고산씨를 비롯한 우주인 지원자들의 사진도 가져간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나온 예비 우주인 고산씨는 “같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우주에 가든 상관 없다”며 “나 역시 한국 최초 우주인 탄생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러시아 국영방송 첸트랄나야를 비롯해 AP, AFP 등 50명이 넘는 외신기자들이 몰려 한국 최초 우주인 탄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의 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소연씨 모교·이웃 축하행사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첫 우주인 탄생을 하루 앞둔 7일, 이소연(29)씨의 고향인 광주는 출신 학교를 비롯한 곳곳에서 이씨의 우주여행을 축하하는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이씨의 모교인 광주과학고는 지난 주말부터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애드벌룬을 띄우며 우주로 떠나게 될 이씨에게 힘을 실어줬다.

과학고는 우주선 발사일인 8일 오후 4시부터 대규모 축하행사를 벌인다. 전교생이 참가해 단체응원전을 펼치는 한편, 학생들이 제작한 모형로켓 발사도 한다. 대촌중학교 농악부 학생들도 과학고 운동장에서 축하 공연을 하며 ‘선배’를 응원한다.

오후 7시부터 강당에서 있을 2부 행사에서는 전교생을 비롯한 학부모, 동문, 교사 등이 역사적인 우주선 발사 현장을 대형 화면으로 함께 본다. 광주학생관현악단과 합창단의 공연 후 발사카운트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과학고 김우종 교장은 “역사에 길이 남을 한국 첫 우주인이 우리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며 “뜻깊은 날을 함께 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역시 이씨의 출신 학교인 송원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선배인 이씨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향하는 장면을 시청한 뒤 소감문을 작성해 올 것을 숙제로 내줬고, 송원중학교는 이씨의 귀환 이후 초청 강연을 준비 중이다.

이씨 부모가 다니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성지교회 측은 2주 전부터 기도회와 소식지를 통해 이씨의 우주비행을 축하했으며, 발사 당일인 8일에는 신도들이 모여 무사귀환을 비는 기도회를 열 계획이다.

광주시 서구청은 당초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에 이소연 한국인 첫 우주인 선정 기념식수 등 자체 행사를 기획했으나 이씨 부모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은 이씨의 귀환 후 행사를 이씨의 부모들과 협의 중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29)씨를 태운 소유스 우주선의 발사를 하루 앞둔 7일 이씨의 모교인 광주 과학고등학교에는 이씨의 후배들이 이씨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과 무사귀환을 바라는 응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이소연법’ 제정 추진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 의장은 7일 한국인 첫 탑승우주인 이소연씨 탄생을 계기로 ‘우주항공중심도시 특별법’, 일명 ‘이소연법’ 제정을 추진해 항공우주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소연법’은 고흥만 간척지 일대에 2012년까지 1천890㎢ 규모의 우주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어 우주항공 R&D 센터와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우주항공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우주 사이언스 파크 인근에 6천610㎢ 규모의 부지를 조성, 우주항공 분야와 관련한 고교 및 대학을 유치하기로 했다.

총 소요예산은 1천863억원으로 국비 1천630억원, 지방비 233억원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